

순천시 PVC 공장 화재 발생

공장 내부 600m²와 원료 소실 ... 재산피해 7000만원 추정

순천에 위치한 PVC(Polyvinyl Chloride) 공장에서 불이 나 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월14일 오전 1시20분 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PVC 공장에서 불이 나 70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이에 따라 공장 내부 600m²와 PVC 원료 등이 불에 탔다.

불이 나자 소방차 12대 등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가연성이 높은 PVC 원료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4>